

# U대회 선수촌내 주월초교 2016년 개교 차질 빛나

### 광주시 94억중 7억 확보 그쳐

### 3726가구 입주민 반발 클듯

광주시가 예산확보를 못해 2015년 광주주계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내 주월초등학교 리모델링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

자칫 오는 2016년 3월 개교 일정마저 미뤄질 경우 3726가구에 이르는 선수촌 입주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 7월 개교되는 광주U대회 선수촌 부지인 서구 화정동 주공아파트

트 재건축 단지 내에 위치한 광주 주월초등학교는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오는 2016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주월초등학교는 지난 2012년 9월 재건축에 따른 분진과 소음,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휴교를 결정하고, 당시 재학생 350명을 영주초교와 농성초교, 화정초교, 봉주초교 등으로 분산 배정했다.

주월초교는 총 144억원(광주시 94억원, 시교육청 50억원)을 들여 내년 3월부터 학교 재배치와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다. 시교육청은 관련 예산 50억원을 모두 확보한 반면 광주시는 94억원

중 겨우 7억원만 확보한 상태다.

시는 국토부의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응모·선정을 통해 주월초교 리모델링 사업 예산 87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탈락하면서 국비 확보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시는 주월초교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시비로 부족한 87억원을 메워야 하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상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내년에 국비 확보에 실패할 경우 2016년 3월 개교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월초교 리모델링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특히 2016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 등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심 재건축방식으로 짓고있는 광주U대회 선수촌은 현재 7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총 1만4000여명의 선수단과 국제기술임원(ITO)·운영요원이 머물게 될 선수촌은 총 3726가구 중 2508가구를 사용하게 된다. 입·퇴출센터, 식당, 병원, 종교관 등 부대시설은 2015년 4월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비 정산방식 바꾼다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보전금 착복 의혹 등(광주일보 17일자 1, 3면)을 해소하기 위해 운송비용 정산 지침 개정 등 준공영제 운영방식 개선에 나선다.

시는 또 내년 1월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방법 개선, 운송업체의 지출 투명성 검증 등 준공영제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하지만 준공영제 재점검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는데다, 시내버스 회사들의 각종 비리 의혹에도 감사 계획 등은 빠져있어 ‘버스업체 감싸기 행태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는 17일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운송수입 및 운송비용 정산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일부 운송업체 구조조정으로 업체별 인원 불균형이 발생, 표준운송원가 적용에 한계가 있어 업체 규모별 적정인원을 고려해 서정비·관리직 인건비를 산정하기로 했다. 3년마다 산정하던 운전원 임금 인상률은 1년마다 산정한다. 서비스와 경영평가 객관성 확보, 운수종사자 복지 향상을 위해 평가 매뉴얼도 개정했다. 운송업체에 주는 성과이윤 중 30%는 운전원, 정비직, 관리직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파업에 불참하고 운행한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한다.

이와 함께 신규 택지지구인 효천 2지구와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등 5개 노선의 일부 구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2013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정산결과 원가 1703억원, 운송수입 1308억원으로 395억원의 적자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시내버스 회사들이 주장하는 올해 적자는 지난해보다 61억원(15.4%)이 늘어난 456억원으로 유가하락 등을 감안하면 적자폭이 너무 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빛가람 도시 교육여건 개선 학급당 학생수 高 20·中 24명”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특목고인 전남외고, 과학고와 같은 20명, 중학교는 전국 공립중학교 중 최초로 24명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학생 인력에 따른 개별지도, 토론 협력수업과 인성지도 등을 위한 학급 편성이 가능하게 됐다.



김옥기(나주·사진)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들과 나주지역 학생들이 교육특구 혜택에 버금가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각각 20명과 24명으로 조정하고, 빛누리 유치원 개원을 1년 앞당겨 2015년 3월에 5학급 규모로 개원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근심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올해 한아름유치원, 빛가람초교, 봉황고가 개교한 이후 2016년에는 빛누리초교, 2017년 이후에는 가칭 신평초교, 매성초교, 매성중, 매성고, 동안초교, 동안유치원 등이 잇따라 개교(원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빛가람 혁신도시의 성패는 교육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공공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육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임직원들과 주민들이 자녀교육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명실공히 명품 교육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도민·공무원이 꼽은 올 최대 뉴스

## ‘세월호 참사’

전남도민과 공무원들은 올해 전대 뉴스로 ‘세월호 참사’를 꼽았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민과 공무원 1033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2014 전남도정 10대 뉴스’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5%(728명)가 ‘세월호 참사 전남도 대책본부 운영’을 꼽아 올해의 최대 뉴스로 선정됐다.

이번 조사는 전남도가 30개 주요 도정뉴스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10개 항목을 복수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민선6기, 이낙연 호 공식 출범’ 725명(70.2%), ‘빛가람 에너지 벨리, 한전 나주시대 개막’ 576명(55.8%), ‘전남교통정책 100원 택시·버스공영제 본격화’ 509명(49.3%) 등의 순이었다.

또 ‘순천만정원 경유 관광코스 인기’ 36.9%, ‘실질적 제2정사 동부지역분 확대 개척’ 35.9%, ‘완도해조류박람회 관람객 54만명 돌파’ 30.2%, ‘호남권 정책협의회 복원, 광주·전남·전북 상생협력 재개’ 29.7%, ‘이낙연 지사, 일본기업 스미토모세이카 1억 달러 투자 유치’ 29.0%, ‘평안축제 통해 호남 호국정신 재조명’ 26.1% 등이 그 뒤를 이어 10대 뉴스에 올랐다.

방육길 전남도 대변인은 “이 땅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온 국민이 오열했고, 전남도는 사고 현장인 진도 팽목항을 ‘안전 대한민국의 출발항’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함께 희생자 추모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며 “또 민선 6기 ‘이낙연 호’가 출범하면서 도정에 큰 변화를 일게 했다고 공무원과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새정치 광주시장 남구 대의원 대회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위원장 임내현)은 17일 오후 남구 양지사회종합복지관에서 남구 대의원대회를 열고 전국 대의원과 선출직 사무위원을 선출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여수·순천·광양시, 광역교통망 구축 힘 모은다

### 행정협 7년만에 재가동

### 8개사업 상호 협력기로

여수시와 순천·광양시 등 광양만권 3개 시가 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모은다.

광양만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가 지난 2007년 중단된 이후 7년 만에 재가동된다.

정현복 광양시장과 주철현 여수시장, 조충훈 순천시장은 17일 광양시청에서 ‘제2회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를 갖고 73만 시민과 더불어 광양만권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의 ‘광양만권 상생발전 위

한 여수·순천·광양시장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시장들은 3개 시 광역교통망 시스템 구축, 광양항 활성화 지원 공동 대응, 3개 시 광역관광 활성화, 크루즈관광 활성화 및 공동마케팅 사업단 운영, 여수공항 활성화, 3개 시 시립예술단 교류, 생활체육 교류, 순천만정원 제1호 국가정원 지정 공동대응 등 8개 제안사업에 상호 협력기로 결의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동부권 공동번영과 상생발전을 위해 실무진이 구성된 만큼 지역별 역량강화에 적극 나서 그동안 소홀했던 관계 복원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광양만권 행정협의회

가 시민들에 희망을 주도록 화합된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며 “향후 일부 정치적 이해관계를 극복해 아픔과 갈등해소의 밑거름이 되자”고 말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광역교통망 시스템은 21세기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 1월 국회의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실질적으로 실행할 안건을 우선 정해 가시적 성과를 내자”고 강조했다.

3개 시는 광양만권 행정협의회는 매년 두차례 개최하기로 했으며 다음 모임은 내년 상반기에 여수시에서 가질 예정이다. 내년 1년간 협의회를 이룰 회장으로는 주철현 여수시장이 선출됐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준법감시심의필(안제14008호) www.suhyup-bank.com

# 무배당 SH사랑海 저축공제

실세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로  
수익 올리고 목적자금 마련

무배당 SH사랑海 저축공제는 단기·장기 목적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공제입니다.

이 공제계약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약자 1인당 최고 5년만일까지 보호됩니다. (동 계약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특별법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Sh 수협보험**